

매머드

털매머드(학명: *Mammuthus primigenius*)는 최종빙기 중에서도 특히 추운 시기였던 약 3만 년 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홋카이도로 건너왔습니다. 해수면이 내려가고 빙하가 확대되자 사할린섬, 홋카이도 북부 및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가 생겼습니다. 이 시기에 몇몇 동물종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홋카이도로 넘어왔습니다. 그중에는 네발가락도롱뇽처럼 현재도 구시로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.

털매머드는 아프리카코끼리와 비슷한 크기였으며, 추위에 잘 적응했습니다. 털매머드의 몸을 덮은 짧고 폭신평신했던 털가죽은 길고 거친 겹털로 덮여있었습니다. 매머드 이빨 화석은 구시로 남서쪽에 있는 에리모곶 등 구시로 주변의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전시되어 있는 전신 골격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매머드 화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레플리카로 체장 3.5m, 체고 2.9m이며, 상아 길이는 2.5m입니다.